



‘함께 호흡하는’ 벤처인들의 ‘진짜’ 벤처 네트워킹을 만든다!

벤처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회장 **엘앤티텍(주) 이태금 대표**

‘늘 푸르른 꿈을 가지고...’ 라는 문구를 명함에 새기고, ‘약수를 하며 마음속으로 상대에게 좋은 말을 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 생산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엘앤티텍(주) 대표이자 벤처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태금 대표를 만나 그의 일과 총동문회의 미래를 듣는다.

“교육과정중 실질적인 정보교류는 물론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CEO들끼리 ‘함께 호흡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벤처최고경영자과정의 경험을 기분 좋게 풀어놓는 이태금 대표. 사업 초기부터 같은 업종에서도 차별화에 주력한 이 대표의 특별함이 총동문회의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사업-사람-정보가 모이는 총동문회

“다른 기관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대다수 최고경영자 과정이 친목교류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벤처최고경영자과정은 실질적인 업무와 정보 교류의 장이거든요. ‘진짜 벤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곳입니다. 해외연수도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직접 방문해 경영여건을 둘러보고 수출할 수 있는 곳들을 방문합니다.” 몇몇 타기관의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경험해봤다는 이 대표. 그는 “한마디로 ‘CEO 교육과 정보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벤처최고경영자과정의 차별화 포인트를 조목조목 정리했다. 그가 총동문회 회장직을 맡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사실 벤처CEO는 함께할 수 있는 모임이 있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CEO는 고민을 말할 데가 없어요. 이같은 문제를 총동문회를 통해 공통화하고 분산된 것을 명제화하여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이태금 대표는 CEO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온 총동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말을 꺼낸다. “현재 4기에 와서 총동문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전 기수들은 각 기 단합 형태로 꾸준히 모임을 갖고 있었죠. 수료한 사람들의 단순 친목모임보다 CEO간 네트워크를 배우고 최고답게 만들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CEO는 영업, 재무, 마케팅 등 저마다 전공분야를 갖고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 내부 경영진에 의해 처리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CEO간 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1차 활동으로 상정, 추진하겠다는 계획. 현재 ‘이업종 교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것은 2기 수강생들이 서로의 회사를 순회 방문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주방기기 회사 CEO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CEO가 통할 것 같지 않지만 서로의 회사 방문을 통해 마케팅, 웹사이트개선, 영업, 인맥관계 교환 등의 활동이 벌어졌다. 이런 사례들을 근간으로 시너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실현하는 것이 1차 목표다.

벤처 최고의 경영네트워크

지난 11월 총회를 통해 운영진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동문회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이 대표. 엘엔텍(주)은 주로 자동차 검사장비 제조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업력을 통해 강소 벤처로 자리잡았다.

“엘엔텍이 하는 일은 생명과 차량의 제품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검사장비를 만드는 회사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인명과 화재사고 때 우리 검사 장비를 이용한 사고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보람입니다”라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며 “이 분야는 아직 불모



지와 다름없다”고 덧붙인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국내엔 없는 기술을 이전하고 개발, 확대시키는 것도 벤처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 없는 나라에 기술을 이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보람이죠.”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업초기 국산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구매처 확보에 어려움도 겪었다고. 이 대표는 “국내 회사들이 국산화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건 여전히 문제입니다. ‘국산은 싸다’라는 인식을 해소하는 것도 힘들었지요.” 지금은 역수출도 가능한 구조적 시스템을 완성해 동남아에 설비 수출 중이다. 현재 그의 고객은 자동차 분야에서 현대, 기아, 대우, 중국 상하이GM 등이고 부품메이커로 델파이, 만도, 지멘스 등이 있다.

이렇게 사업을 안정적인 궤도로 올려놓은 이태금 대표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에도 눈을 돌렸다. “아이디어는 좋는데 자금 때문에 개발하지 못한 기술이 있다면, 총동문회 회원 100명이 공감하여 천만 원씩 모으면 10억이 됩니다. 이렇게 모임 자금을 투자하고 이업종으로도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과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태금 대표가 총동문회 운영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이다. “사회생활하면서 진정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최고경영자과정이 제가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동생과 형이 생긴 거죠” 사람이 좋아 모임을 갖게 되었고 모임구성원이 벤처 CEO들인지라 자연스럽게 사업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서로 쉽게 공감하고 몇 시간이 금방 흐른다는 이 대표의 말. “좋아하는 건 말리지 못한다”는 말처럼 총동문회 일은 어느새 이 대표가 즐기고 좋아하는 일이 되었다.

내년도 사업과 총동문회 활동계획으로 누구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는 이 대표의 2008년. 총동문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벤처 10년의 선두에서 함께 발전하고 나누는 경영의 참 모습을 실현하길 기대한다.